

## 기혼 여성의 성가치관이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

성 한 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손 영 화<sup>†</sup>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성가치관 즉, 성만족, 성생활 태도 및 혼외관계 태도가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모형을 구성하여 밝혀보았다. 조사대상자는 대구 지역의 기혼 여성 444명이었고, 검증 결과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가치관 요인은 성만족도와 혼외관계 태도였고, 성생활 태도는 유의하지 않게 나와 가설 1과 3은 지지된 반면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혼외관계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성가치관 요인은 혼외관계 태도였고, 성만족도와 성생활 태도는 유의하지 않게 나와 가설 4와 5는 지지되지 않았고 가설 6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결혼 만족도는 혼외관계 의도와 이혼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외관계 의도 또한 이혼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가설 7, 8 및 9는 모두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 의의 및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성가치관, 성만족도, 성생활 태도, 혼외관계 태도, 결혼 만족도, 혼외관계 의도, 이혼 의도

---

<sup>†</sup> 교신저자 : 손영화,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전임강사  
E-mail : syh8981@kmu.ac.kr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은 선악과 찬반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으로 작용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반적 가치관은 그 사회를 이끌고 가는 규범이 되는 동시에 그 사회의 건전함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 칠거지악을 내세우는 사람은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로 여겨졌던 혼전 순결은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동시대에서도 세대나 사회 경제적 계층 등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X세대나 N세대나 하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이들이 기성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서 따로 구분할 필요성을 가지기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와 같이 가치관은 동시대에서도 다양한 집단 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하며, 현대의 변화 속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빠르다 보니 현대 사회가 ‘가치관 혼란’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치관 변화에 관해 가장 자주 논의되는 두 가지 이슈는 청소년 및 청년의 가치관(예, 조한혜정, 2000)과 더불어 여성의 가치관이다. 근래 매스컴을 중심으로 기혼 여성의 가치관 변화가 두드러지며, 특히 이들의 가족 가치관이나 성가치관의 변화 양상은 이혼이나 혼외 관계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한겨레21, 2003.7.17). 한편, 페미니즘의 시각(예, 조영미, 1998)에서는 1990년대를 전통적인 도덕적 성문화와 남성위주의 성문화가 도전받은 시기로 규정하고 여성의 성가치관의 변화를 여성들이 수동적이고 억압된 성으로부터

성적 주체성을 찾아가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사실 기혼 여성의 성가치관이나 성행동에 관해서 사회적 관심은 높았으나 학술적 공론이 본격화된 시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흥미 위주 또는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져 왔으며,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여성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결혼과 이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 제도가 지니고 있는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결혼 제도의 퇴조는 여러 지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표에는 초혼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동거가 늘어나고, 혼외 출산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 등이 포함된다(Smock, 2004). 이러한 결혼 제도의 기능이 퇴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변화 중 특히 가족 해체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이혼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혼의 사유 또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양옥경, 이기연, 박지연, 이현영, 김은실, 2005).

이혼의 사유도 시대에 따라, 곧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혼의 대표적인 이유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에서 IMF 이후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나 이해 부족과 같은 부부간의 친밀성과 정서적 문제, 그리고 성격 차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통계청 조사자료(2006)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의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격 차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성격만의

표 1. 이혼 사유 통계(1995-2006)

	계 [건]	부부 불화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 문제	성격 차이	건강상	기타	미상
1995	68,279	56,713	-	-	-	2,023	-	639	7,580	1,324
1996	79,895	66,538	-	-	-	2,819	-	769	8,924	845
1997	91,159	75,089	-	-	-	3,866	-	908	10,804	492
1998	116,727	94,151	-	-	-	7,714	-	1,112	13,634	116
1999	118,014	94,600	-	-	-	8,336	-	1,031	13,873	174
2000	119,982	-	9,736	5,210	26,269	12,793	48,157	1,054	15,571	1,192
2001	135,014	-	11,781	6,309	23,795	15,617	58,069	975	17,121	1,347
2002	145,324	-	12,550	6,947	20,887	19,727	65,001	924	17,898	1,390
2003	167,096	-	12,287	7,163	21,735	27,354	75,706	1,025	19,940	1,886
2004	139,365	-	9,697	5,852	13,987	20,483	68,806	888	16,926	2,726
2005	128,468	-	9,720	5,711	12,206	19,132	63,164	803	15,506	2,226
2006	125,032	-	9,446	5,643	11,132	18,310	62,168	955	14,961	2,417

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사람들 속에서는 이른바 ‘성적 차이’라는 말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특히 부부 간의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꺼내 보이기 힘든 문제가 바로 부부 간의 성일 것이다.

성은 결혼 생활의 일부로서, 부부는 성을 통해 신체적 만족 뿐 아니라 정서적 만족을 함께 얻는다. 특히 부부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는 성이 상호 애정과 신뢰를 나누는 수단이 되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임영, 2002). 실제로 여러 학자들도 결혼 만족에서 성만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성만족이 결혼 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결혼 생활에서 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경옥, 김영희, 2003; Hulbert, Apt,

& Rabehi, 1993; Young, Denny, Luquis, & Young, 1998).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이 부부에 따라서는 즐거움, 애정 및 만족을 높여주기 보다는 부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결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이영실, 1989; Bell, 1979; Young, Denny, Young, & Luquis, 2000).

또한 이혼의 주된 이유로 등장했던 배우자의 외도 즉, 혼외관계의 문제도 부부 간의 성 문제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성적 불만족이 부부 갈등을 일으키고(Bell, 1979), 낮은 성만족도가 결혼 만족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이경옥, 김영희, 2003) 혼외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Glass & Marano, 1998; Treas & Giesen, 2000),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이혼의 사유 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통계청, 2006), 실제 재판을 통한 이혼에서도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 신청을 한 비율이 약 45%로(법원 행정처, 2002) 1994년 이래 재판 이혼 신청 사유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양옥경 외, 2005). 또한 성격 차이로 대표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나 이해 부족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 인한 이혼 역시 혼외관계라는 사회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공미혜, 2000; 2002; 한경혜 외, 2003).

성 문제와 혼외관계 문제는 사회적 허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성별이중 구조에 의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 양쪽 배우자간에 성적 배타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부부 사이에 정조는 필수적인 의무이다(장필화,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적 배타성은 비대칭적으로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이면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성욕이 강하고 충동적이라는 생물학적 본질론과 순수 부계 혈통의 유지를 위해서는 여성의 정조가 필수적이라는 가부장적 성규범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여성의 혼외관계는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결혼의 해체와 바로 연결되는 위험한 관계가 된다(공미혜, 2002).

부부의 성생활은 남녀의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 연구는 대부분 남성에게 편중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이 여러 면에서 남성의 성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선행 연구(Cox, 1990; Whipple, 2002)들을 통해 밝혀지면서 기혼 여성의 성과 성만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혼외관계에 대한

연구도 흥미 위주의 기사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성 개방 풍조와 함께 전반적인 사회의 성에 대한 태도와 의식이 달라지면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혼외관계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적 쾌락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실정이다. 하지만 남성들이 혼외관계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와는 다른 어떤 원인들이 여성들에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성들에게 있어서 혼외관계와 성 만족이나 결혼 만족과의 관련성과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혼외관계와 성만족이나 결혼 만족과의 관련성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부부 간의 이혼 문제를 다루면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만족스러워 하고 있는가이다. 지금까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김영희, 1999; 윤경자, 1997; 이경옥, 김영희, 2003; 이미숙, 1997; 이영미, 김정희, 1997; Caughlin, Huston, & Houts, 2000)이 수행되어 왔고, 결혼 만족과 이혼 의도의 관계 및 영향 요인을 다룬 연구(이경성, 2001; 이경성, 한덕용, 2001; 이무영, 이소희, 2003; 한경혜, 이정화, 2002;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 2003; Amato & Rogers, 1999; Glenn, 1996)들도 수행되어왔으며, 혼외관계의 원인이나 특성을 밝히는 연구(공미혜, 구명숙, 2001; 공미혜, 2002; 양옥경 외, 2005; 이영숙 외, 2000; Glass & Marano, 1998; Shachkelford & Buss, 1997; Treas & Giesen, 2000)와 혼외관계와 결혼 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공미혜, 2002; Brown, 1991; Sprecher, Regan, & Mckinney, 1998)도 수행되어 왔지만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성만족도를 포함한 부부 성생활 태

도와 혼외관계 태도와 같은 성가치관이 결혼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성가치관에 따른 결혼 만족이 혼외관계 의도와 이혼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의 성가치관에 초점을 두고 성가치관 즉, 성만족, 부부 성생활 태도, 그리고 혼외관계 태도가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모형을 구성하여 밝혀 보았다.

성만족과 부부 성생활 태도가 결혼 만족에 미치는 효과

성가치관이란 성에 관한 포괄적 태도를 의미한다. 성가치관을 형성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해서 부부간의 성생활, 혼외성관계, 혼전성관계, 혼전동거, 동성애, 매매춘, 성폭력 그리고 성교육 등 성에 관한 모든 측면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포함한다.

성한기(2003)는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부부의 이혼 경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추세를 확인하였다. 첫째, 우리사회의 이혼율이 90년대 중반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둘째, 황혼이혼과 같이 이혼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고 셋째, 이혼 사유도 다양해져서 과거에는 폭행이나 외도와 같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유가 대부분이었으나 근래에는 정서적 또는 경제적 이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넷째, 이혼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변화가 두드러져서 이혼을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이혼율이 증가하는 데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는다' 또는 자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여성의 가치관 변화가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가치관,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들(예, 한세영, 2006)은 다수 수행되었으나, 기혼 여성들의 성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기혼 여성들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생활 만족에 대한 연구(이인숙, 문정순, 2000)가 탐색적 수준에서 수행되었고, 성특성과 성행동이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경옥, 김영희, 2003) 등이 수행된 바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가족관계, 이혼, 부부간의 성만족이나 성태도, 혼외관계 등에 관한 실증 연구를 통해서 기혼 여성의 성가치관 변화를 간접적으로 읽어내고자 시도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부부간 불화는 성적 부조화나 불만족과 같은 성적 문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왔으며(이경옥, 김영희, 2003; 이인숙, 문정순, 2000; 장순복, 강희선, 김숙남, 1998; Hurlbert, Apt, & Rabehi, 1993), 이러한 부부간의 성적 문제가 부부간 불화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 만족과 이혼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결국 내면적으로 성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부부간의 성이란 결혼과 함께 시작되는 결혼 생활의 핵심 요소이고 부부간의 중요한 관심사로서 결혼 관계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반면, 성적 부적응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갈등은 결국 이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장순복(1996)은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 성욕구의 충족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성적 욕구가 생존적 욕구라기보다는 생리적 욕구가 동반된 부부 관계적 욕구로서 결혼 유지 기능의 의미가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부부간의 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하는 점이다.

Kahn(1979)은 배우자와 정서적 관계가 친밀할수록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혼만족이 클수록 더 높은 빈도의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 Bell(1979)과 Levine(1976)도 성적 부적응과 부부의 전반적 부부관계 만족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높은 성적 만족은 부부 갈등의 요인을 감소시켜주며, 부부의 만족스러운 성관계는 높은 부부 적응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경옥과 김영희(2003)는 기혼 여성의 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성특성과 성행동이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성만족도가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통해 성만족과 결혼 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성만족도는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의사소통, 성일치도, 성관계 빈도로 나타나 이들 요인들이 성만족도를 통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부부간의 성생활 태도 역시 성만족과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이경옥, 김영희, 2003; 이인숙, 문정순, 2000). 근래 개방화의 영향으로 남녀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던 성에 대한 이중기준이 감소되고 혼전 성행위를 허용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 성에 대한 태도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이경옥, 김영희, 2003). 이와 관련하여 부부 간의 성만족에서 여성들의 분명한 태도 표출이 중요한 요인임을 암시해 주는 연구결과도 있다. 양희란(1993)은 한국의 부부들은 성적 불만족의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편이지만 성에 대

한 의사소통이 원활한 부부들이 성적 만족이 높았고, 성적 만족이 높은 부부의 경우 남편이 성관계 의사를 주로 표현하지만 성관계는 상호 주도하며, 여성의 성만족은 배우자의 지나 성행위 빈도보다는 개방적인 성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경옥과 김영희(2003)도 성태도에 따라 성만족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성적으로 자기의 요구를 주장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성만족도가 더 높다고 함으로써 수동적 태도보다 남녀가 성에 대해 평등적 태도를 갖는 것이 성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성만족과 성생활 태도가 결혼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성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성생활 태도가 진보적일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혼외관계 태도,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 변인들 간의 관계

사람은 누구나 배우자 이외의 이성에게도 매력을 느낀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인간의 감정이 쉽사리 부정행위로 이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부간에 어떠한 부조화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감정들이 부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혼문제 전문가들은 부정이 대부분 보다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며, 특히 여성들의 부정은 정서적 애착을 원하는 욕망에서 생긴다고 지적한다(윤가현, 1998).

기혼 여성들의 성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결혼 만족과 이혼 의도에서 혼외관계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혼외관계 문제는 학문적 영역에서보다는 흥미 위주의 기사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공미혜, 2002), 또한 혼외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혼외관계란 결혼 관계 이외의 대상과 정서적 관계, 성적 관계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간통, 외도, 불륜, 혼외 성관계 등의 유사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심영희, 1991).

기혼 여성의 혼외관계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불행한 결혼생활, 배우자와의 성적 부조화, 도덕성 결여, 개방화된 성인식, 사회활동을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 기회의 증가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2000; Glass & Marano, 1998; Shachkelford & Buss, 1997; Treas & Giesen, 2000). 남성들의 경우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고 결혼 생활에도 큰 불만족이 없어도 성적 호기심이나 권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혼외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많은 여성들은 부부 관계의 불만 때문에 혼외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이영숙 외,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Brown, 1991; Greeley, 1991; Treas & Giesen, 2000), 또 다른 이유로는 남편의 성욕이 감소하여 성적부조화가 생기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일부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증명하기 위해 혼외관계를 시도하기도 한다(이영숙 외, 1999). 또한 부부 관계의 불만이외에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여성들의 혼외관계 증가

와 관련성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Richardson, 1985; Scott, 1998).

한편 결혼 생활의 과정 및 그 결과로서의 혼외관계를 설명할 때, 결혼생활에서 배우자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혼외관계를 배우자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불만족한 배우자는 그 관계를 끝내기 위해 혼외관계를 추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개인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기회를 잡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Brown, 1991; Sprecher, 1998). 또한 기혼 여성의 혼외관계는 정서적 만족감을 구하기 위한 통로로서 작용하여, 결혼생활의 만족이 낮을수록, 의사소통이 안될수록, 부부 상호간에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남성 주도의 부부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혼외관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남은주, 1998). 이는 윤가현(1998)이 여성들의 부정은 정서적 애착을 원하는 욕망에서 생긴다고 지적했듯이, 기혼 여성들에게 혼외관계로 인한 가장 큰 보상은 성적 만족감보다는 심리적 충족감이라 할 수 있다(양옥경 외, 2005).

이혼 의도는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결혼 관계를 해체하려는 태도를 형성하고 이와 관련된 행동들을 시도하고자 하는 개인의 반응경향성이며, 이는 결혼 만족도가 낮은 상태로 결혼 생활이 지속될 때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거나 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매력적인 대안이 존재하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혼 의도는 이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한경혜, 강유진 및 한민아(2003)는 이혼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는 결혼 해체의 억제력으로

작용하여 결혼의 결속력을 증가시키고 이혼에 허용적인 태도는 결혼 해체를 촉진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혼에 허용적인 사람은 결혼 생활에 시간과 에너지를 덜 투자하고 부부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덜 하게 되며,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Glenn, 1996; Amato & Rogers, 1999).

이혼이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면, 결혼 생활의 불만족이 곧 결혼 생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결혼 관계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결혼 생활은 당사자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우울증이나 행동장애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Wang & Crane, 2001). 최근에 수행된 이혼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혼과 관련된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한경혜 외, 2002; 2003; 김성희, 2003), 이혼 의도, 시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경성, 2001), 결혼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김미숙, 김명자, 1990; 김태현, 전길양, 2002; 임선영, 김태현, 2002) 등이 있다.

이혼 또는 결혼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지표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들은 크게 나누어 두 개의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차원은 소득이나 교육 기회 등 개인이 동원 가능한 자원과 연령이나 인종 등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질적인 위치 등으로 대표되는 객관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들이 결혼의 안정성이나 질, 특히 가족의 변화, 부모의 책임감에 있어서의 변화 등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다른 차원의 연구들은 결혼생

활의 유지 또는 파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배우자간의 대인 관계, 상호작용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양옥경 외, 2005).

앞에서 제시한 표 1에서 나타났듯이, 최근 3년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1995년부터 2003까지 한국의 이혼율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이혼의 사유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 하는 것이 낫다는 식의 이혼에 대한 허용적 분위기와 기혼 여성들의 가치관이나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이러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 사유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이혼 억제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녀라는 변수가 더 이상 이혼의 억제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부간의 성적 갈등보다도 심리적 정서적 갈등이 더 중요한 이혼 사유(한경혜 외, 2002; 김성희, 2003)가 되는 등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애정적, 정서적 결혼관계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혼외관계 태도가 결혼 만족 및 혼외관계 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결혼 만족과 혼외관계 의도가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혼외관계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4.** 성만족도가 낮을수록 혼외관계 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5.** 성생활 태도가 진보적일수록 혼외관계 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6.** 혼외관계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혼외관계 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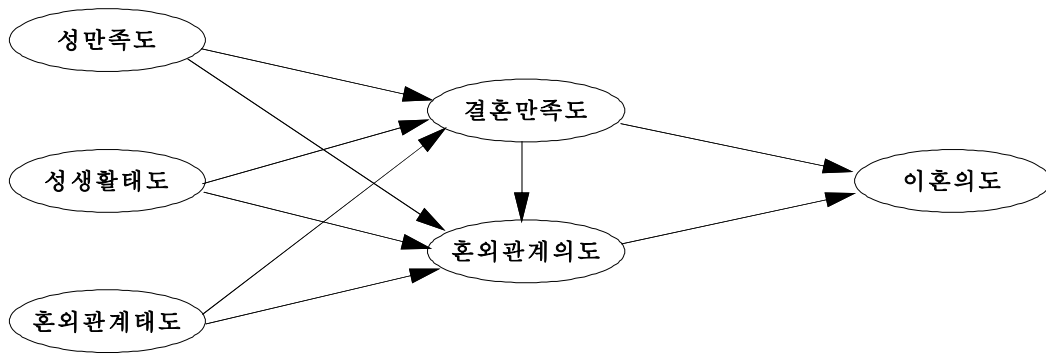


그림 1. 이론 모형

**가설 7.** 결혼 만족도가 낮을수록 혼외관계 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8.** 결혼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이혼 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9.** 혼외관계 의도가 높아질수록 이혼 의도도 높아질 것이다.

연구 모형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혼 여성들의 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결혼 생활 만족과 부부 관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한 성가치관을 다룬 연구는 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들 중 기혼 여성들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이인숙, 문정순, 2000)와 기혼 여성의 성특성과 성행동이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경옥, 김영희, 2003)가 관련 변인들을 다루었고, 혼외관계와 결혼 만족 그리고 이혼 의도에 관한 연구(공미혜, 2002; 양옥경 외, 2005)들이 수행되었지만 부부들의 성관련 가치관과 결혼 만족, 혼외 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기혼 여성들의 성가치관 즉, 성만족, 성생활 태도 및 혼외관계 태도와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와의 관계를 함께 다룬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가치관 즉, 성만족도, 부부성생활 태도 및 혼외관계 태도가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구성하여 관련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조사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 474명을 임의 표집하여 질문지에 응답을 받았다. 그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다수의 질문에 응답을 누락한 3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444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 수강생, 교사, 은행원, 가정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었으며, 연령 범위는 23세부터 65세까지였다.

## 조사 방법

조사는 여성회관 및 문화센터의 수강생들에게는 교육시간에 집단으로 실시하여 집단으로 수거하였고, 그 외의 대상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응답하게 한 다음 작성한 질문지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밀봉한 상태로 수거하여 응답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다. 질문지 응답에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설문지 구성

질문지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모형에 포함된 구성 요인들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문항들에는 기혼여성의 성가치관의 하위 요인인 성만족도, 부부 성생활태도, 혼외관계 태도 문항들과 결혼 만족도,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측정 문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만족도

부부간의 성행위를 통해 경험하는 주관적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숙남, 장순복 및 강희선(1997)이 제작한 여성의 성만족척도 중 7문항으로 된 반응척도(예, 나는 성관계시 즐거움을 느낀다)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확실히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사대상자들에게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45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 부부 성생활태도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Hudson과 Murphy(1990)의 SAS

(Sexual Attitude Scale)과 선행 연구들(이경옥, 김영희, 2003; 이인숙, 문정순, 2000)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토대로 연구자가 7문항의 척도(예, 성관계는 결혼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를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확실히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성생활에 대한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본 조사대상자들에게서 측정된 신뢰도는  $\alpha=.678$ 로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 혼외관계태도

남편 외의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 관한 태도를 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예, 나는 남편 외에 대화를 나눌 남자친구가 필요하다)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확실히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혼외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측정된 신뢰도는  $\alpha=.858$ 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 혼외관계 의도

행동 의도는 어떤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을 뜻하며 행동의 근사치로서 태도보다 행동을 더 잘 예측한다(Ajzen & Fishbein, 1980). 혼외관계 의도는 ‘나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귄 의사가 있다’와 ‘나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본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측정된 신뢰도는  $\alpha=.875$ 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 결혼만족도

결혼 생활과 남편에 대해서 지니는 태도로

서 이경성과 한덕웅(2003)이 개발한 결혼적응 검사의 하위 검사들 중 7문항으로 된 결혼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 생활에 관한 전반적 만족을 측정하는 세 문항(예, 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과 남편에 대한 만족을 묻는 네 문항(예, 나는 마지못해 남편과 함께 산다)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확실히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되어있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측정된 신뢰도는  $\alpha=.937$ 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 이혼 의도

이혼 의도 문항은 Booth, Johnson 및 Edwards (1983)가 제작한 결혼 불안정성지표(Marital Instability Index)의 단축형 5문항(예, 나는 이혼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다)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지표는 '아니다'와 '그렇다'의 2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본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측정된 신뢰도는  $\alpha=.819$ 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항척도들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모형의 측정변수들은 문항의 개별 값을 사용하였으며, 모수(parameter) 추정방식으로는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법을 이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 검증은 LISREL 8.52 윈도우용을 이용하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과 기타 통계분석은 SPSS(12.0버전)를 사용하였다.

## 결 과

###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이 서로 잘 변별되는지 알아보고, 측정 문항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 내 모든 이론 변인들 간 상관을 지정하여 이론 모형에 대한 자유도를 0이 되게 함으로써, 측정 모형에 대해서만 모형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의 모수 추정방식은 ML법을 이용하였으며, 모형 검증 결과 얻어진 측정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들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전반적 합치도 지수들 중 NFI, NNFI 및 CFI의 값이 Bentler와 Bonett(1980)이 제시한 좋은 모형의 기준인 .90을 훨씬 넘고 있으며, GFI와 AGFI의 값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표본 자료로 전집 자료를 추정할 때의 오차를 나타내는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 또한 Steiger(1990)가 제안한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척도가 서로 변별되며, 아울러 각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가 타당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들의 해당 척도에 대한 요인 부하량이 대부분 0.5를 넘고 있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혼외관계 태도(.678)를 제외한 모든 척도들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8을 넘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여성 연령대	20대	53(11.9)
	30대	224(50.5)
	40대	122(27.5)
	50대	40( 9.0)
	60대	5( 1.1)
	계	444(100.0)
배우자 연령대	20대	13( 2.9)
	30대	207(46.6)
	40대	147(33.1)
	50대	65(14.6)
	60대	12( 2.7)
	계	444(100.0)
결혼 기간	5년 미만	67(15.1)
	5-10년 미만	115(25.9)
	10-15년 미만	122(27.5)
	15-20년 미만	48(10.8)
	20년 이상	92(20.7)
	계	444(100.0)
학력	중졸이하	26( 5.9)
	고졸	175(39.4)
	대재/대졸	207(46.6)
	대학원재이상	36( 8.1)
	계	444(100.0)
직업	전업주부	308(69.4)
	전문/관리직	51(11.5)
	사무/기술직	25( 5.6)
	자영업	26( 5.9)
	판매서비스직	12( 2.7)
	기타	22( 5.0)
	계	444(100.0)

측정 변인들간의 상호 상관 및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모형 구성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호상관 계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계수 분석 결과를 보면, 성만족도는 다른 변인들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결혼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성생활 태도는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혼외관계 태도,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외관계 의도는 혼외관계 태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이혼 의도는 결혼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부합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구성한 모형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Chi-square가 855.411(df=365, p<.001)로 유의하였고, 전반적 부합도 지수들 중 NFI, NNFI 및 CFI의 값이 Bentler와 Bonett(1980)이 제시한 좋은 모형의 기준인 .90을 훨씬 넘고 있으며, GIF와 AGIF의 값도 .882와 .860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표본 자료로 전집자료를 추정할 때의 오차를 나타내는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값 또한 Steiger(1990)가 제안한 좋은 부합도의 기준인 .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도 .05 이하일 때 적합하다고 한(Maruyama, 1998)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 제시된 연구 모형의 경로별 분석을 통해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였고, 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1은 경로 계수가 .386(t=6.915, p<.05)으로 성만족이 결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부하량	$\alpha$ 계수				
성만족도		1.남편은 성관계시 나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647	.845				
		2.나는 성관계시 오르가즘(절정감)을 경험한다	.773					
		3.나는 성관계시 즐거움을 느낀다	.814					
		4.나는 남편에게 성적 요구를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645					
		5.남편과의 성관계 횟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564					
부부 성생활 태도		1.성관계는 부부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504	.678				
		2.성관계에 있어 오르가즘이 중요하다	.361					
		3.성생활에 관해 부부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587					
		4.부부간에 성적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805					
혼외관계 태도		1.나는 남편 외에 대화를 나눌 남자친구가 필요하다	.947	.858				
		2.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959					
		3.정서적으로 깊이 빠지지 않는다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932					
		4.남편 외의 남자와 일회성 만남은 기분이 전환되는 즐거운 일이다	.802					
		5.남편과 불화로 혼외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641					
		6.나는 가끔 다른 남자가 유혹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다	.730					
결혼 만족도		1.나는 남편과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832	.937				
		2.나는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895					
		3.나는 남편이 지겹다	.823					
		4.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825					
		5.나는 마지못해 남편과 함께 산다	.893					
		6.나의 결혼생활은 불행하다	.815					
		7.나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다	.768					
혼외관계 의도		1.나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귄 의사가 있다	1.033	.875				
		2.나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	.762					
이혼의도 (2점)		1.나는 이혼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다	.275	.819				
		2.남편이나 내가 최근 3년 이내에 심각하게 이혼을 제외한 적이 있다	.298					
		3.나는 친한 친구와 이혼이나 별거에 관해 의논한 적이 있다	.297					
		4.우리 부부의 결혼생활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265					
		5.이혼이나 별거에 관한 생각이 최근 3년 동안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295					
측정모형 부합도	$\chi^2$	RMSEA	NFI	NNFI	CFI	GFI	AGFI	sRMR
	809.139(df=362)	.0549	.957	.973	.975	.884	.860	.054

표 4. 측정 변인들간의 상호 상관 및 기술통계치

	성만족도	성생활태도	혼외관계태도	결혼만족도	혼외관계의도	이혼의도
성만족도	1.000					
성생활태도	0.348***	1.000				
혼외관계태도	-0.201***	-0.001	1.000			
결혼만족도	0.447***	0.178***	-0.401***	1.000		
혼외관계의도	-0.222***	0.025	0.687***	-0.396***	1.000	
이혼의도	-0.263***	0.000	0.348***	-0.583***	0.351***	1.000
평균	3.46	3.84	1.85	3.83	2.53	1.23
표준편차	0.74	0.65	0.95	0.86	0.90	0.3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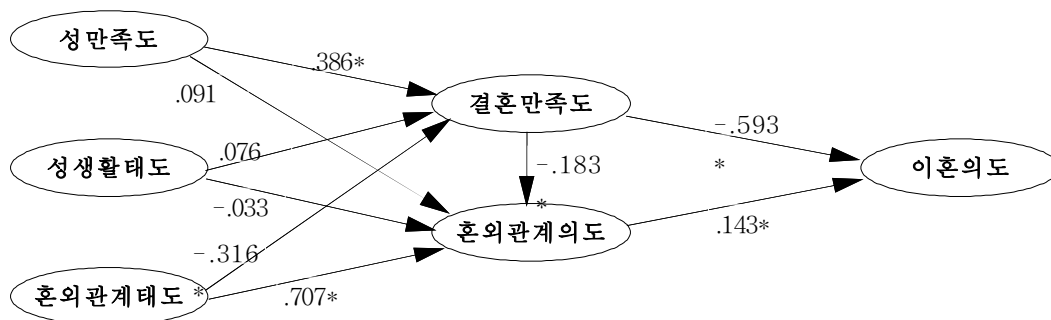
표 5 . 연구 모형의 부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chi^2$	RMSEA	NFI	NNFI	CFI	GFI	AGFI	RMR
검증 모형	855.411(df=365)	.055	.956	.972	.975	.882	.860	.050

혼 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성만족도가 높으면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생활 태도가 결혼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2는 경로계수가 .076( $t=1.349$ , n.s.)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지지되지 않았다. 혼외관계 태도

가 결혼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3은 경로계수가  $-0.316$ ( $t=-6.560$ ,  $p<.05$ )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가치관 중에서 성만족과 혼외관계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혼외관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  $p < .05$

그림 2. 연구 모형 검증 결과

표 6. 경로별 유의도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t 값	가설 지지여부
가설 1	성만족 → 결혼 만족	.386	6.915*	지지됨
가설 2	성생활 태도 → 결혼 만족	.076	1.349	지지되지 않음
가설 3	혼외관계 태도 → 결혼 만족	-.316	-6.560*	지지됨
가설 4	성만족 → 혼외관계 의도	.091	1.801	지지되지 않음
가설 5	성생활 태도 → 혼외관계 의도	-.033	-0.678	지지되지 않음
가설 6	혼외관계 태도 → 혼외관계 의도	.707	14.678*	지지됨
가설 7	결혼 만족 → 혼외관계 의도	-.183	-3.860*	지지됨
가설 8	결혼 만족 → 이혼 의도	-.593	-10.138*	지지됨
가설 9	혼외관계 의도 → 이혼 의도	.143	2.907*	지지됨

\*  $p < .05$

인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이다. 가설 4와 5는 성만족과 성생활 태도가 혼외관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혼외관계 태도가 혼외관계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6은 경로계수가 .707( $t=14.678, p<.05$ )로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되었고, 가설 7도 경로계수가 -.183( $t=-3.860, p<.05$ )로 유의하여 지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성만족과 성생활 태도는 혼외관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 성만족도가 낮다고 해서 혼외관계 의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성생활 태도가 진보적이라고 해서 혼외관계 의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혼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 만족이 이혼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8은 경로계수가 -.593( $t=-10.138, p<.05$ )으로 유의하였고, 혼외관계 의

도가 이혼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9도 경로계수가 .143( $t=2.907, p<.05$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8과 9는 모두 지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이혼 의도가 높아지고 혼외관계 의도가 높아질수록 이혼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성만족, 성생활 태도 및 혼외관계 태도가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모형을 구성하여 밝혀보았다. 검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가치관 요인은 성만족도와 혼외관계 태도였고, 성생활 태도는 유의하지 않게 나와 가설 1과 3은 지지된 반면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혼외관계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성가치관 요인은 혼외관계 태도였고, 성만족도와 성생활 태도는 유의하지 않게 나와 가설 4와 5는 지지되지 않았고 가설 6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결혼 만족도는 혼외관계 의도와 이혼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외관계 의도 또한 이혼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가설 7, 8 및 9는 모두 지지되었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 만족도에 성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기존 선행 연구(이경옥, 김영희, 2003; 이인숙, 문정순, 2000)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으나 성생활 태도가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외관계 태도가 결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혼외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선행 연구들(이영숙 외, 2000; Brown, 1991; Sprecher, Regan, & McKinney, 1998)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다음은 혼외관계 의도에 미치는 성가치관 요인들의 효과에서 혼외관계 태도를 제외한 성만족도와 성생활 태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혼외관계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에 수행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혼외관계의 원인을 배우자와의 성적 부조화와 불행한 결혼생활 때문이라고 하였고(이영숙 외, 2000; Treas & Giesen, 2000),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결혼생활이나 성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도 혼외관계를 가지지만, 여성의 경우는 부부관계의 불만 때문에 혼외관계

를 가진다고 하였으며(이영숙 외,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Brown, 1991), 남은주(1998)도 결혼생활의 만족이 낮을수록, 남성 위주의 부부관계를 맺을수록 혼외관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만족도와 성생활 태도는 혼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 반면, 결혼 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혼외관계 태도가 혼외관계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외관계 의도에 관련된 변인들의 검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혼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부부간의 성만족도가 높고 낮음과 성생활 태도 얼마나 진보적이나 보다는 전반적인 결혼 만족도가 낮은 정도와 혼외관계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또한 성만족도가 혼외관계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기존 여성들에게 혼외관계로 인한 가장 큰 보상은 성적 만족감보다는 심리적 충족감이라 할 수 있다(양옥경 외, 2005)는 주장과는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8과 9는 결혼 만족도와 혼외 의도가 이혼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으로 모두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즉 결혼 만족도가 낮아지면 이혼 의도가 증가하고 혼외관계 의도가 높아지면 이혼 의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결혼 만족과 이혼 의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경성, 2001; 이무영, 이소희, 2003; 한경혜, 이정화,



2002;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 2003; Amato & Rogers, 1999; Glenn, 199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만족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보다는 결혼 생활을 중단하려는 이혼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혼외관계 의도가 높아지면 이혼 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는 Sprecher (1998)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혼외관계를 새로운 관계 모색의 기회로 볼 수 있으며, Brown(1991)도 감정적으로 이미 멀어진 부부에게 결별을 위한 혼외관계가 제시된 것보다 연결되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기혼 여성들에게 있어서 성만족이란 결혼 생활의 만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생활 태도는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경옥 외, 2003)이기는 하지만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으며, 혼외 관계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결혼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혼외관계 의도에는 성만족이나 성생활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고 결혼 만족도와 혼외관계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기혼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 만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성만족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얽매어 감추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성적 부조화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사전에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혼 여성의 성가치관 변화로 인해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증가하면서 남성들만의 전유물로 생각되어온 혼외관계가 여성들에게서도 점차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어 가

면서 혼외관계로 인한 이혼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기혼 여성들의 혼외관계 의도가 성적 불만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여성들이 혼외관계를 통해 남성들과는 달리 정서적으로 더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재경, 2000)과 기혼 여성의 혼외관계는 정서적 만족감을 구하기 위한 통로로 작용한다는 주장(남은주, 1998)과 일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남편과 가정에 헌신하는 만큼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공미혜, 2002). 따라서 이러한 기혼 여성들의 혼외관계를 방지하고 이혼으로 가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정서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더불어 부부 성생활에 있어서도 평등한 입장에서 신체적 만족 뿐 아니라 심리적 만족을 충족시켜 결혼 만족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여 볼 때 가지고 있는 의의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수행되어진 연구들이 주로 결혼 만족이나 이혼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성격 특성이나 결혼 생활 방식과 같은 특성 수준에서 다양하게 탐색하고 밝혀온 반면, 본 연구는 학문적 수준에서 다루어 오지 못했던 성가치관 즉, 성만족도, 성생활 태도 및 혼외관계 태도와 같은 변인들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혼외관계 의도와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까지 함께 다루었다는 점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대구지역 기혼여성의 성가치관을

조사하였으나 결과가 다른 지역 여성들의 성가치관과 어느 정도로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대체로 유사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선 타 지역 여성의 성가치관에 관한 체계적 연구 자료가 드물어 비교하기가 어려웠고, 타 지역 여성과 대비되는 대구 여성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자료 역시 구하기 어려워 대구 기혼여성들 특유의 성가치관을 유추할 수가 없었다.

둘째,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가치관 변화에 사회적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혼 여성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부부가 동시에 조사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기혼 남성들의 응답을 함께 얻었더라면 성가치관의 성차까지 확인하게 되어 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현상을 재는 척도인데, 결혼 만족도에 관해서는 신뢰할만한 척도들(예, 권정혜, 채규만, 1998; 이경성, 한덕웅, 2003)이 개발되어있으나 성가치관 분야와 이혼 의도 척도는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여 한국과 한국인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척도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컸다. 앞으로 잘 만들어진 척도들을 가지고 전국 각 지역의 기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성가치관 및 성행동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공미혜 (2002). 혼외관계를 경험한 기혼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20.  
공미혜 (2002). 기혼여성의 결혼 불만족과 혼외관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 대한가정학

회지, 40(1), 195-208.  
권정혜, 채규만(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98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5-51.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김미숙, 김명자 (1990).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71-183.  
김선영, 김영희 (2005).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 요인: 신혼 초와 현재 결혼생활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43(9), 41-57.  
김숙남, 장순복, 강희선(1997). 여성의 성만족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7(4), 753-764.  
김영희 (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이론적 모형. 한국생활과학회지, 5(2), 53-72.  
김임영 (2002).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이 신혼기 부부의 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 전길양 (2002). 노년기 부부의 결혼특성요인과 결혼안정성. 대한가정학회지, 20(4), 197-206.  
남은주 (1998). 남녀의 외도원인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혜숙 (1993). 부부적응과 성적 적응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연구: 도시 중산층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문홍세 (1989). 사랑, 성의 정신역동. 한국임상성학회지. 1(1), 23-30.  
법원행정처 (1982-2002). 사법연감.

- 성한기 (2003). 한국부부의 이혼: 경향과 대책.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21-35.
- 심영희 (1991).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옥경, 이기연, 박지영, 이현영, 김은실 (2005). 혼외관계를 사유로 하는 이혼에 관한 연구: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3), 165-194.
- 양유성 (2002). 사랑은 바람을 타고: 외도의 심리와 상담. 서울: 학지사.
- 양희란 (1993). 임신부인의 성생활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가현 (1998).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윤경자 (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5.
- 이경성(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97-119.
- 이경성, 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679-705.
- 이경옥, 김영희 (2003). 기혼여성의 성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1(7), 39-58.
- 이경희, 옥선화 (2002). 부부관계 유형과 판별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4), 179- 199.
- 이근후 (1997). 조선일보.
- 이무영, 이소희 (2003). 이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8(2), 39-61.
- 이영실 (1989).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제 요인과 성생활 불만족 정도.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숙, 문정순 (2000). 기혼여성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2). 396-414.
- 이효재 (1986).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 임선영, 김태현 (2002). 노년기 부부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 한국노년학, 21(3), 111-128.
- 장순복 (1996). 기혼여성의 성적 자율성. 간호학탐구, 5(1), 71-88.
- 장순복, 강희선, 김숙남 (1998). 기혼여성의 성만족. 대한간호학회지, 28(1), 201-209.
- 장필화 (2000). 여성. 몸. 성.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영미 (1999).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성폭력상담소(위음), 섹슈얼리티 강의, 서울: 동녘.
- 조한혜정 (2000). N세대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연구의 방향: ‘발달심리학’에서 ‘자아형성학’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8.
- 통계청 (1995-2006). 인구동태연보.
- 한겨레21 (2003.7.17). 애인, 또 하나의 가족?
- 한경혜, 이정화 (2002).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9), 161-173.
-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 (2003). 이혼태도와 관련된 요인. 가족과 문화, 15(1), 77-9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한세영 (2006). 대학생의 성가치관,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총, 10(1), 59-74.
- 현경자 (2004). 기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독립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4), 239-

- 268.
- 현택수 (2004). 현대인의 사랑과 성. 서울: 동문선.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mato, P. R., & Rogers, S. J. (1999). Do Attitudes toward divorce affect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20(1), 69-86.
- Bell, R. B. (1979). *Marriage and family interaction (3rd. ed.)*. New York: The Dorsey Press.
- Bell, R. B. & Bell, P. L. (1972).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Medical Aspects of Human Sexuality*, 6, 136-144.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of-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ooth, A., Johnson, D., & Edwards, J. N.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May), 387-394.
- Brown, E. (1991). *Patterns of Infidelity and Their Treatment*. New York, Brunner-Mazel.
- Coughlin, J., Huston, T., & Houts, R. (2000). How does personality in marriage? An examination of trait anxiety, interpersonal negativ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26-336.
- Cox, F. D. (1990). *Human intimacy: the family and its meaning*(5th ed.). St Paul, N. Y., L.A., San Francisco: West Publishing Company.
- Derogatis, L. R. (1980). Psychological assessment of psychosexual functioning.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1), 58-71.
- Glass, S., & Marano, H. (1998). Shattered vows. *Psychology Today*, 31(4), 34-52.
- Glenn, N. (1996). The recent trend in marital succes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61-270.
- Greeley, A. M. (1991). *Faithful Attraction*. N. Y.: A Tom Doherty Associates Book.
- Hudson, W. W., & Murphy, G. J. (1990). *Sexual attitude scale*. Walmyr Publishing Co.
- Hunt, M. (1974). *Sexual behavior in the seventies*. Chicago: Playboy Press.
- Hunter, S., & Sundel, M. (1994). Midlife for women: A new perspective. *Journal of Women and Social Work*, 9(2), 113-128.
- Hurlbert, D. F., Apt, C., & Rabehi, S. M. (1993). Key variables to understanding female sexual satisfaction: An examination of women in non-distressed marriage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2(2), 134-165.
- Hurlbert, D. F., Apt, C., Hurlbert, M. K., & Pierce, A. P. (2000). Sexual compatibility and the sexual desire-motivation in females with hypoactive sexual desire disorder. *Behavior Modification*, 24, 325-347.
- Kahn, R. L. (1979). *Aging and social support*. In M. W. Riley(ed.), *Aging from birth to death*. Boulder Co.
- Levine, S. B. (1976). Marital sexual dysfunction: Introductory concepts. *Ann Intern Med*, 83, 448-453.
- Maruyama, G. M.(1998). *Ba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McCann, J. T. & Biagglo, M. K. (1989). Sexual satisfaction in marriage as a function of life

- meanig,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8(1), 59-72.
- Mecloski, J. C. (1976). How to make the most of body image therapy, *Nursing*, 76, 68-72.
- Richardson, L. (1985). *The New Other Woman*. N. Y.: The Free Press.
- Schumm, W. R., Paff-Bergen, L. A. Hatch, R. C., Obiorah, F. C., Coperland, J. E., Meens, L. D., & Bugighis, M. A. (199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8.
- Scott, J. (1998). Changing attitudes to sexual morality: A cross-national comparison. *Sociology*, 32(4), 815-818.
- Shachkelford, T. K. & Buss, D. M. (1997). Cues in Infide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1034-1045.
- Smock, P. J. (2001). The wax and wane of marriage: Prospects for marriage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4), 966-973.
- Snyder, D. B.(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Sprecher, S., Regan, R. C., & McKinney, K. (1998). Beliefs about the outcomes of extramarital sexual relationships as a function of the gender of the 'cheating spouse'. *Sex Roles* 38(3/4), 301-311.
- Treas, J., & Giese, D. (2000). Sexual Infidelity among married and Cohabiting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1), 48-60.
- Wang, L., & Crane, D. R.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stability, nuclear family triangulation, and childhood depress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9(4), 337-347.
- Whipple, B. (2002). Women's sexual pleasure and satisfaction: A new view of female sexual function, *Female Patient*, 27, 44-47.
- Wiederman, M. W. (1997). Extramarital sex: Prevalence and correlates in a national surve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4(2), 167-174.
- Young, M., Denny, G., Luquis, R., & Young, T. (1998). Correlates of sexual satisfaction in marriage.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7(2), 115-127.
- Young, M., Denny, G., Young, T., & Luquis, R. (2000).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ies*, 16, 43-84.
- 1 차원고집수 : 2007. 5. 10.  
심사통과집수 : 2007. 6. 20.  
최종원고집수 : 2007. 6. 23.

## **Effects of Married Women's Sexual Value on Marital Satisfaction, Extramarital Sexual Intention and Divorce Intention**

**Han Gee Seo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Young Hwa So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tested a causal model that anticipated effects of married women's sexual satisfaction, sexual attitude and extramarital sexual attitude on marital satisfaction, extramarital sexual intention and divorce intention. Results of the survey to 444 married women are as follows. Sexual satisfaction and extramarital sexual attitude significantly influenced marital satisfaction, but sexual attitude didn't influence marital satisfaction. Extramarital sexual attitude was the only factor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extramarital sexual intention. And sexual satisfaction, sexual attitude and extramarital sexual attitude influenced divorce intention, respectively.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is discussed.

*Key words* : *sexual value, sexual satisfaction, sexual attitude, extramarital sexual attitude, marital satisfaction, extramarital sexual intention, divorce intention*